

2020 년 11 월 1 일 “아브라함 이야기(9) 중보자의 모습”(창 18:16-33)

고 존 스토틀 목사, “저녁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집이 어두워졌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가 지면 집 안은 당연히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이 때 물어야 할 것은 ‘등잔불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스토틀 목사는 세상이 캄캄하다고 비난하는 것보다 “빛과 소금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를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최악의 상태를 보시면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사 59:16).

오늘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 중보자는 어떤 성품과 축복으로 들어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품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17 절), 그리고 그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18 절). 또한 자손을 잘 가르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라는 뜻에서 그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이삭이 이것을 해냈습니다(v.19).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20 절). 죄가 만연하면 파급성, 폭력성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끼쳐 고통과 울부짖음의 소리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검증을 위해 내려가십니다.

이런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22 절). 주님 말씀을 듣고 침묵과 묵상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기 심정을 급하게 내보이지 않고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냐는 강한 말로 여쭙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한 것입니다. 주님은 보려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돔/고모라가 그 지경까지 갈 수 있겠다는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인 십 명이 있다면 성을 멸하시겠냐고 여쭙니다. 주님은 십 명이 있으면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하시죠(26 절).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인 45 명, 40 명, 30 명, 20 명, 10 명까지 낮추면서 멸하시겠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답을 주십니다(32 절).

진행되는 중보기도 대화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쯤이면 행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따지는 숫자보다 더 면밀하고 정확한 판단 가운데서 벌어지는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 명까지 언급한 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기도에서 주님은 성심껏 임해 주십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자 됨을 기뻐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의인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는 옳게 산 사람이 심판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의인 10 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보다 큰 긍휼을 가진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둘째, 끈기입니다. 진리와 은혜, 자비와 사랑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랑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상황이 와도 결국 그것의 완성을 위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끈기와 인내를 배웁니다. 이것이 사랑과 진리의 힘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중보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 자신에 대한 관심을 넘어섭니다.

[2] 중보기도의 축복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힘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되면 신앙과 삶의 견고한 중심을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얼마나 큰 긍휼이 있는지를 중보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세상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큰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까지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의 삶을 구현하는 길입니다(창 1:28).

중보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약하고 아픈 사람들, 곤경에 빠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돌봐 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약함과 악함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탓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팬더믹 시대에 중보의 소명을 감내함으로써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충만한 중보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라함이 드리는 기도를 살피면서 발견하는 영적 모습들에 관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2.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